

**A Study on the Effects of Market
Concentration on Diversification**

In Woo Jun



발간사

다각화가 잉여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거래비용의 절감, 위험회피의 동기에서 추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우려하는 이들은 기업집단의 다각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다각화를 억제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집단의 다각화는 시장여건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경제 내에서 정부가 갖는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적극적인 정부개입을 주장하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경제적인 여건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시장의 개방화, 기업의 국제화가 이루어지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아직도 기업경영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영환경의 핵심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경제력집중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시대에 걸맞게 시장구조를 경쟁화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시장경제의 창달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자를 대신하여 이 글을 읽어주고 유익한 논평을 해준 심사자에게

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조석래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test a hypothesis that market concentration might give rise to diversification in Korean big business group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ceding studies, the degree of market concentration which represents competition in a market has influence on diversification.

The empirical result from this study is as follows. (1) The three-firm concentration ratio(CR_3)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which corporate groups have participate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diversification. If the weighted average CR_3 of each market into which corporate groups have entered goes over 67.7%, diversification level increases rapidly. (2) Corporate groups have diversified to use resources efficiently and to avoid risk.

Because of the lack of a relevant data, some reservations must be made about conclusions ; however, to a limited extent, we may suggest that economic policy needs to focus on mitigating market concentration.

목 차

제1장 서론 / 15

제2장 다각화 동기론과 기존 논의 / 17

1. 시장집중과 다각화 / 17
2. 다각화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 / 20

제3장 시장집중과 다각화 현황 / 30

1. 시장집중의 특성과 기업집단 / 30
2. 기업집단의 다각화 구조 / 37

제4장 실증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46

1. 가설의 설정과 검정 / 46
2. 정부의 정책적 과제 / 51

제5장 결론 / 56

참고문헌 / 58

부록 / 63

CONTENTS

I. Introduction / 15

II.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ceding Studies / 17

1. Market Concentration and Diversification / 17
2. Empirical Precedents / 20

III. Statistical Review / 30

1. Characteristics of Market Concentration / 30
2. Structure of Diversification by Industries / 37

IV. Empirical Test and Implication / 46

1. Hypothesis and Test / 46
2. Implications / 51

V. Conclusions / 56

References / 58

Appendix / 63

표 · 그림 목차

- 〈표 3-1〉 광공업 부문의 시장집중 추이 / 30
- 〈표 3-2〉 형태별 시장집중도 분포 추세 / 31
- 〈표 3-3〉 제조업 부문 전체시장 및 기업집단 참여시장의 시장집중률 추이 / 31
- 〈표 3-4〉 20대 기업집단간의 시장경쟁 / 32
- 〈표 3-5〉 30대 기업집단 참여산업 현황(전산업 대상) / 33
- 〈표 3-6〉 제조업에 있어서의 30대 기업집단 참여산업 현황 / 34
- 〈표 3-7〉 기업집단 계열기업의 시장지위(1994) / 35
- 〈표 3-8〉 30대 기업집단의 제조업내 매출액 비중(1993) / 36
- 〈표 3-9〉 기업집단 규모별 영위업종수 현황(전산업 대상) / 38
- 〈표 3-10〉 기업집단 규모별 영위업종수 현황(제조업 대상) / 38
- 〈표 3-11〉 30대 기업집단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분포도(전산업 대상) / 40
- 〈표 3-12〉 30대 기업집단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분포도(제조업 대상) / 41
- 〈표 3-13〉 10대 기업집단의 참여산업 추이(전산업 대상) / 43
- 〈표 3-14〉 10대 기업집단의 참여산업 추이(제조업 대상) / 44
- 〈표 4-1〉 회귀분석 결과 / 49
- 〈표 4-2〉 일반집중률 변동요인 분석 / 54

- 〈그림 4-1〉 시장집중이 다각화에 미치는 효과 / 50

제1장 서론

그간 정부는 기업집단에 의한 다각화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집단의 다각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공정거래법 개정과 같은 정부정책에 의해 둔화될 것 같지도 않다.¹⁾

기업이 다각화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크게 보면 신고전학파적 시각에서 시장지배력 강화의 동기에 초점을 둔 시장지배력 관점market power view과 잉여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동기에 초점을 두고 다각화를 설명한 자원관점resource view, 이와는 달리 거래비용의 절감동기를 강조하는 거래비용론 관점transaction cost view과 경영자의 사적 이익추구 동기에서 다각화를 한다고 보는 대리인 관점agency view이 있다. 이 외에도 성장동기, 위험회피 동기 등에 의해서도 다각화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르면 기업집단이 다각화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어떠한 간에 기업집단의 다각화는 기업집단의 내적인 요인과 기업 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특히 기업 외적인 요인으로는 시장의 구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 경쟁적인 구조

1)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 채무보증의 제한 등을 통해 기업집단의 다각화를 규제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인우(1995)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력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법률적 규제에 대해서는 김일중(1994)을 참고할 수 있다.

를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독과점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다각화에 대한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시장집중과 기업집단 다각화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기초적인 논의로 다각화의 경제적 동기, 시장집중과 다각화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다각화에 관한 국내외의 주요 연구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장집중이 다각화 연구에서 갖는 의미를 찾아본다. 제3장에서는 시장집중의 현황과 기업집단의 역할을 비롯하여 기업집단들의 다각화 현황을 참여산업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시장집중이 기업집단의 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시장집중과 다각화에 관한 논의를 국민경제 전체적인 차원으로 확장하여 정부의 정책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시한다.

제2장 다각화 동기론과 기존 논의

1. 시장집중과 다각화

시장집중과 다각화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에 앞서 다각화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각화의 동기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²⁾ 첫째, 시장지배력의 창출 또는 강화가 다각화의 동기가 된다는 논의가 있다. 시장지배력 관점에 따르면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만약 기업집단이 시장점유율의 확대나 시장봉쇄, 압목적 담합 등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창출하거나 강화하고자 한다면 다각화를 추구할 것이다. 둘째, 잉여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다각화의 동기가 된다. 과잉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각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자원관점에 따르면 다각화는 새로운 시장에서의 진출을 통한 지대추구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규모의 경제를 중시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 상당한 과잉설비를 보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원관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과잉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각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2) 다각화의 동기를 경영자의 사적 이익추구에서 설명하는 대리인 관점agency view이 있다. 이 관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경영자의 고용위험 회피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체로 소유경영자에 의해 경영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대리인 관점에 의해 다각화의 동기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거래비용을 절감하려는 동기에서 다각화가 추구된다. 거래비용에 따라 거래형태를 선택하는 거래비용 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불확실성과 자산의 특정성이 높은 경우 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러므로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영환경하에서 기업집단들은 다각화를 통해 거래를 내부화하려는 동기를 가졌을 것으로 본다. 이 외에도 위험회피적 동기, 수요분화에의 대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각화의 동기로 지적할 수 있다.³⁾

여기서 시장집중의 정도는 다각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집단의 외적 경영환경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시장집중은 특정 기업이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매출, 자산, 고용 등의 비중을 파악한 것으로 지수화하여 시장구조를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된다.⁴⁾ 이와 같이

3) 정부정책도 다각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례로 슈라이퍼와 비쉬니(Schleifer and Vishny)(1991)에 따르면, 1960년대에 미국에서 나타난 비관련 다각화는 부분적으로 반독점규제를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매수합병의 수단을 통한 미국기업의 다각화 과정을 돌이켜 보더라도 다각화가 정부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수평결합적 매수합병이 나타난 것은 1890년에 셔먼(Sherman)법이 제정되면서 카르텔이나 트러스트 형성이 제약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14년의 클레이튼(Clinton)법에 의해 수평결합이 금지되면서 미국기업들은 수직결합적 매수합병을 시도하였다. 그 후 셔먼법과 클레이튼법, 1950년에 제정된 셀러-케파우버(Celler-Kefauver)법 등으로 수평 및 수직 결합이 금지되자 미국기업들은 다른 업종의 기업을 매수합병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복합기업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독점금지법 운용의 완화, 지적소유권 강화, 법인세 감면 등에 의해 매수합병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정책이 다각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지만 이 연구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4) 시장집중의 정도를 지수화하는 방법으로는 상위기업집중률, 허핀달지수, 엔트로피지수 등이 있다. 특히 상위기업집중률은 N개 기업 중 상위 k번째 기업까지의 시장점유율을 합계한 것으로 일종의 누적집중지수이다. 예를 들어 상위

시장집중의 정도를 지수화한 개별산업 내에서의 시장집중률이 기업 집단의 다각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는 현재 특정 기업집단이 영위하고 있는 주력산업의 시장집중률이 다각화를 유발하는 경로이다. 고트Gort(1962)에 의하면, 주력제품의 시장집중률이 높은 경우에 기업은 다각화를 추진한다. 그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이 시장수요보다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해당 시장집중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고집중 산업에서는 소수의 상위 기업 생산량이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따라서 상위 기업의 생산량 증가는 가격의 저하를 가져오거나 여타 한계기업의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만약 집중률이 높은 산업에서 지배적 기업이 수요증가율보다 높은 성장률을 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각화 전략을 취하거나, 당해 산업에서 경쟁을 통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지배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의 하락과 광고비 및 연구개발비 지출의 확대에 의한 제품차별화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보다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고트는 후자의 방법은 많은 비용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기업은 주력산업 외부에서 투자기회를 찾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독점적 상호의존 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단은 경쟁기업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동일한 수단에 의해 반격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획득된 경쟁기업에 대한 우위성은 경쟁기업의 반격에 의해

k번째 기업까지의 시장점유율 합계인 상위 k기업 시장집중률(CR_k)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 지수는 N개 기업 중 k개 기업의 점유율만 알면 쉽게 계산되므로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CR_k = \sum_{i=1}^k S_i$$

상쇄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고집중도 산업의 지배적 기업은 주력산업 영역의 외부에서 투자기회를 찾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집중 산업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계기업의 경우, 합병 또는 기업신설을 통해 여타 산업으로 다각화하려는 유인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상위기업간의 담합에 의해 독과점적 폐해가 나타나는 고집중 산업 내에서 시장점유율이 낮은 한계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쟁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위험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특정 기업집단이 현재 영위하지 않는 여타 산업의 시장집중률이다. 만약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산업에서 정상이윤 이상의 이윤이 기대된다면, 기업집단은 정상이윤 이상의 이윤을 획득하려는 목적에서 그 산업에 진출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르Om(1974)는 산업이윤이 진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과거의 산업이윤은 잠재적인 진입자로 하여금 그 산업에 진출하려는 유인을 제공한다.

2. 다각화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

해외연구로서 다각화의 결정요인이 시장지배력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 주요연구로는 트렘블레이Tremblay and Tremblay (1988)를 들 수 있다. 그들은 기업이 합병과 매각 또는 현상유지 등의 세 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분석모형의 종속변수를 세 가지 선택의 확률로 설정한 후, 기업과 시장의 특성을 설명변수로 한 로짓logit모형을 통해 미국 맥주산업에 있어서 수평합병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업 및 시장의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

벡터의 주요변수로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로 나타낸 산업집중과 규모의 경제, 가동률, 시장점유율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고트Gort(1969)의 논의에 따라 합병의 시장지배력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고트에 따르면 시장집중률이 높은 경우에 수평합병이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합병에 대한 시장지배력 동기는 시장집중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게 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1950-1983년 동안의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장지배력과 규모의 경제 등은 기업이 수평합병을 시도하게 될 확률에 유의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멜린Lemelin(1982)은 잉여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의 동기에서 다각화를 한다는 자원관점에서 다각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⁵⁾ 회귀모형은 본업principal activity이 I산업인 K기업이 J산업으로 다각화할 확률 $P(K, I, J)$ 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와 I산업 및 J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들로 설명변수를 구성하였다. 또한 I와 J산업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벡터를 설명변수로 하였다. 펜로즈Penrose(1959)의 이론에 따라 I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로는 기업 특유의 자원에 대한 가용성을 나타내는 I산업내 기업의 평균 고용규모, 기업수, 산업출하액에서의 순수출비중 등의 변수들로 구성되었다. J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로는 성장과 이윤기회 등 진출산업의 흡인성attractiveness 정도를 나타내는 산업출하액에

5) 오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자원관점에서 몽고메리와 하리하란Montgomery and Hariharan(1991)은 다각화 동기에 대한 연구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산업에서의 이윤이 다각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서의 수입비중과 순수출비중, 상위4사 집중도 등의 변수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본업과 유사한 산업일수록 그 산업으로 다각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에 따라 I와 J산업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투입-산출 구조, 동일산업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등으로 $Z(I, J)$ 벡터가 구성되었다. 한편 종속변수로는 J산업에 할당된 I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근로자수 및 I산업내 기업의 J산업에서의 활동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실증결과에 따르면, 다각화의 결정요인으로 마케팅 및 유통채널이 중요하며 관련산업 내에서 다각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성장동기가 다각화의 주요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4사 집중도는 다각화와 부(-)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진입장벽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레비Levy(1985)는 거래비용론에 기초하여 수직결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모형의 종속변수로는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로 표시된 수직결합의 정도(VI)가 사용되었다. 수직결합의 정도를 설명하는 변수로는 거래비용 관련변수인 거래특정적 자본의 대용변수로 공장으로부터 500마일 이내에 수송되는 제품의 비중 등이 설정되었다. 이 외에도 광고집약도와 연구개발집약도가 설명변수로 사용되었다.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비표준적인 생산요소가 투입되거나 신기술 등이 사용되므로 거래특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는 제품차별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광고집약도 및 연구개발집약도가 거래특정적인 투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수요의 불확실성과 위험도를 비롯하여 기업 내부의 경영비용internal costs of management의 대용변수인 기업의 규모, 조직 유형 등이 고려되었다. 한편 전기의 수직결합 정도, 최소 효율규모와 상위4사의 집중도 등이 채택되었다. 설명변수 중 최소 효율규모와 상위4사 집중도는 산업수요에 대한 상대적인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형에 대해 시계열을 고려한 기업단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실증결과에 따르면 수직결합은 거래의 특정성을 나타내는 연구개발집약도, 기업 내부의 경영비용을 나타내는 기업규모, 조직유형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최소 효율규모와 상위4사 집중도는 수직결합에 대해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구조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다각화의 동기에 대해 아미훗과 레브Amihud and Lev(1981)는 소유지분율을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합병의 유형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의 추정을 통해 대리인 관점에서 실증분석하였다. 그들은 경영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가정하에 고용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위험감소적 행동을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복합합병을 경영자의 위험감소 동기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자의 행동은 주주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대리인 비용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경영자의 위험감소 동기에 대한 가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첫째는 다각화의 특정수단인 복합합병에 초점을 둔 검증방법으로 복합합병이 기업의 지배유형과 관련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소유권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경영자는 보다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선호를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주 통제형 기업보다는 경영자 통제형 기업에 있어서 보다 집약적인 고용위험의 감소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다각화의 수단에 관계없이 다각화가 기업지배의 유형과 관련을 갖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평결합과 수직결합의 경우에는 경영자의 고용위험 감소가 다각화의 동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합합병의 경우에는 위험감소가 다각화의 동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두번째 검증방법에 따라 실증분석한 결과에서

도 경영자의 위험회피 동기에 의하여 소유주 통제형 기업보다 경영자 통제형 기업의 다각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힐과 한센(Hill and Hansen, 1991)은 시장구조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특히 다각화의 결정요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위험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다각화와 성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횡단면 분석에 의존함으로써 양자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다각화가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화의 동기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과 다각화의 관계를 동기론적인 측면과 결과론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위험을 나타내는 대응변수를 다각화 결정요인으로 설정하고 연구개발집약도, 광고집약도, 기관투자자 및 경영자의 주식지분 등과 같은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각화의 동기론 분석에 초점을 두고 설명변수들을 2기의 시차변수로 구성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각화 동기로서의 위험의 정도는 다각화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각화를 설명변수로 두고 위험의 정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동시점에서의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다각화 효과로서의 위험의 정도는 다각화와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한국에서 기업집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본격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초라고 볼 수 있다.⁶⁾ 산업조직론 관점에서 한국에 있어서

6) 한국 기업집단에 대한 연구는 이 외에도 경제력집중의 본질인 소유집중의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하나의 줄기를 형성해 오고 있다. 한국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핫포리 타미오(服部民夫)에 의해서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소유구조 비교를 통해 한국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분석의 장을

의 다각화 유형과 경제력집중 현상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한 초기의 연구로는 이규익·이성순(1985)을 들 수 있다. 일차적으로 경제적 자원이나 활동을 지배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되는 경제력economic power의 개념은 시장력market power, 다각화력diversification power, 복합력conglomerate power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에 있어서 경제력은 이를 초월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⁷⁾ 왜냐하면 대체로 기업의 소유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다각화가 단일기업의 상품수준에서만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업을 결합하는 기업집단economic group의 형태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규익·이재형(1990)은 기업집단의 양적 및 질적인 변화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한 경제력집중 억제대책의 제도적인 도입이라는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재조명하였다. 그리고 기업집단에 의한 일반집중과 산업집중, 소유집중 등의 경제력집중 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경제력집중 원인 및 성과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정병휴·양영식(1992)은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과 소유구조, 경영

열었다. 또한 공병호(1995)는 핫토리 타미오가 제시한 오너지배형과 증핵기업 지배형, 상호지배형의 소유구조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여 한국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집단이 성장하면서 오너지배형에서 상호지배형으로 변화된다는 핫토리 타미오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실증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분석은 아직도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7) 이규익·이성순(1985)에 따르면 시장력은 단일상품 시장이나 산업에서 갖는 기업의 지배력을 의미하고, 다각화력은 다생산물 기업이 여러 시장에 걸쳐 자기의 자원을 이동시킴으로써 단일시장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을 말한다. 그리고 복합력이란 기업의 규모가 크면서 다각화가 되어 있고 일부 시장에서 시장력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기업보다 우월한 총체적 경쟁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 등 광범위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업종다각화를 일반집중 및 시장집중과 더불어 경제력집중의 한 현상으로 분류하여 전체 산업, 비금융산업에 대한 다각화 지수를 계측하고 있다.

한편 장세진 외Chang and Choi(1988)는 전통적인 산업조직론과 다른 관점에 있는 거래비용론transaction cost theory 관점에서 한국 기업집단의 형성논리를 논의하고 기업집단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거래비용론의 관점에서 다각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논의들은 이규억·이성순(1985)에 의해 소개된 바 있지만, 이들의 연구는 실증적 연구로 연결되고 있다.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초기연구로는 정구현(1987)을 들 수 있다. 그는 1974년부터 1984년에 걸친 108개 기업집단에 대해 루멜트Rumelt 기준에 의한 다각화 유형의 변화과정을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루멜트의 분류와는 차이를 두어 수직적 다각화가 단위산업과 수직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의 다각화라는 점에서 본업형보다 더 다각화된 형태로 보고 있다. 그리고 수직 다각화를 본업형이 아닌 관련형의 일부로 분류하고 있다. 그 밖에도 조동성(1990)은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한국 기업집단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기업집단의 형성논리를 경제·경영적 측면과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추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기업집단의 형성과정 및 성과, 소유집중의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한편 김영욱(1993)은 삼성그룹의 다각화 과정과 소유구조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다각화와 소유·지배구조의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기업집단의 다각화와 소유구조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기업 성장사적 관점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집단에 대한 연구는 경제력집중의 한 현상으로서의 다각화가 기업의 성과나 경쟁 등에 미치

는 효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각화의 동기에 관한 연구는 크게 진전이 없었다. 다각화의 동기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본격화되는 것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라고 볼 수 있다.

다각화 동기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규익·박병형(1993)을 들 수 있다. 다각화에 대한 연구가 그간 다각화의 효과에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신고전학파적 논의뿐만 아니라 여러 대안들에 의한 다각화 동기를 기업결합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실증분석적 측면에서 한국 기업집단의 다각화 동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홍현표(1991), 임상일(1992) 등에 의해서라고 볼 수 있다.

홍현표(1991)는 기업집단의 분석을 위한 틀을 설정하기 위해 기업이론을 기업집단 차원으로까지 확장하고, 기업집단의 구조와 행태,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기업집단의 구조적 특질을 조직구조와 자본구조, 소유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다각화를 기업집단의 행태로 보아 다각화 결정요인에 관한 모형을 구성하고 있다. 종속변수로는 엔트로피 지수를 사용함으로써 관련 다각화와 비관련 다각화로 다각화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설명변수인 자산규모는 다양한 잉여자원을 의미하는 변수로 사용되었다. 또한 대규모 고정자산의 존재가 다른 유사공정으로의 다각화를 촉진한다는 논의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의 비율이 설명변수에 포함되었다. 그 밖에도 자본구조와 시장구조변수로서 각각 부채비율과 가중시장집중률이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잉여자금의 대리변수로 유동자산비율을 비롯하여 위험과 수요요인을 고려해 성장률 등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1986년부터 1989년의 4개년 평균치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다각화 총지수에 대해 자산규모, 유형고정자산비율, 부채비율, 가중시장집중률이 다각화와 각각 정(+), 정(+), 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비관련 다각화 지수에 대해서는 자산규모, 유형고정자산 비율, 가중시장집중률이 각각 정(+), 정(+), 정(+)²의 영향을 미치며 관련 다각화 지수에 대해서는 자산규모, 부채비율이 각각 정(+),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잉여자원의 원천으로 볼 수 있는 기업집단의 규모가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에 공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다각화의 유형간 차이는 잉여자금의 능력이 비관련 다각화의 증가요인으로, 가중시장집중률은 과점적 시장구조 요인으로서 안정적인 거래확보를 위한 관련 다각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비관련 다각화의 경우 자금 조달의 원천은 상대적으로 자기자본에 의존하는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았다.

임상일(1992)은 한국 기업집단의 다각화와 시장집중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 결정요인과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는 다각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정태적 요인으로 거래비용의 절감과 위험분산, 공동효과 및 잉여능력의 활용 등을, 동태적 요인으로 기업집단의 수명연장과 기업가정신의 발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각화 결정요인에 대해 1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회귀모형의 추정결과 설명변수로 사용된 거래내부화율, 지배주주 지분율, 순자산규모, 성장률, 연구개발비 등은 허핀달지수를 근거로 계산된 다각화지수의 변화에 대해 각각 정(+), 부(-), 부(-), 부(-), 부(-)의 유의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에 따라 그는 기업집단은 소속 기업간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며, 기존 참여산업의 매출액 증가가 부진할수록 적극적으로 다각화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들어 상위 10대 기업집단은 이미 지배주주의 위험분산을 위한 다각화나 잉여자원의 활용을 위한 제조업 내에서의 다각화에서는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다각화가 숨페터적 기업가정신의 실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홍현표(1991)의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지만, 두 연구의 차이는 분석대상과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다각화에 관한 해외 및 국내 연구를 통해 시장집중률 변수가 시장구조를 나타내는 주요변수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 시장집중은 국내시장의 협소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시장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규모의 경제를 갖는 대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 상위 대기업들에 의해 상당 부분의 시장이 점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장 시장집중과 다각화 현황

1. 시장집중의 특성과 기업집단

개별시장에서의 경쟁정도를 나타내는 시장집중은 진입장벽과 생산물 분화와 같은 다른 시장구조 요소나 공동행위와 같은 기업의 여러 가지 시장행동보다도 시장경쟁 내지 기업의 시장지배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정병휴·양영식(1992)]. 즉, 시장집중의 정도는 기업경영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기업의 행태와 성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면 기업집단의 다각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집중의 현황을 알아보기로 하자.

광공업 부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시장구조가 독과점적 구조에서 경쟁적 구조로 이행하고 있어 시장집중의 정도가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81년 현재 출하액 기준 상위3사 점유율이 50% 미만($CR_3 < 50$)인 경쟁적 시장에서 공급된 품목의 비율은 12.2%에서 1989년 현재 19.4%로 증가하였고, 출하액 비율도 26.1%에서 37.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출하액 기준 상위3사 점유율이

〈표 3-1〉 광공업 부문의 시장집중 추이

구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CR_3 \geq 50$)	품목수(%)	87.8	88.0	86.3	86.9	85.1	83.9	83.5	82.5	80.6
	출하액(%)	73.9	74.8	74.8	73.9	69.9	68.1	64.8	65.1	62.7
($CR_3 < 50$)	품목수(%)	12.2	12.0	13.7	13.1	14.9	16.1	16.5	17.5	19.4
	출하액(%)	26.1	25.2	25.2	26.1	30.1	31.9	35.2	34.9	37.3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50% 이상($CR_5 \geq 50$)인 생산집중적 시장에서 공급된 품목의 비율은 1981년 87.8%에서 1989년 현재 80.6%로 낮아졌으며, 출하액 비율은 1981년 73.9%에서 1989년 현재 62.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의 경쟁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시장은 높은 생산집중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 3-2〉는 최근의 시장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1990년대에 국한하여 시장지배적 품목의 독과점별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따르면 독점 및 복점 시장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과점시장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의 경쟁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2〉 형태별 시장집중도 분포 추세

연도	지정품목수	독 점	복 점	과 점
1990	135	23(17%)	48(36%)	64(47%)
1992	144	17(12%)	52(36%)	75(52%)
1994	122	13(11%)	42(34%)	67(55%)
1996	121	14(11%)	42(35%)	65(54%)

주 : 1994년 및 96년의 경우 공공사업 품목은 제외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1996)

〈표 3-3〉 제조업 부문 전체시장 및 기업집단 참여시장의 시장집중률 추이

규모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전체시장	0.34239	0.32740	0.32170	0.31606	0.29950	0.28552
5대	0.28391	0.27626	0.28544	0.28240	0.27571	0.26132
10대	0.28471	0.28230	0.28766	0.29483	0.28949	0.27397
20대	0.29494	0.29498	0.29148	0.29020	0.27951	0.26564
30대	0.29554	0.28931	0.29230	0.28567	0.27589	0.25997

자료 : 정병훈·양영식(1992)

〈표 3-3〉은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시장을 중심으로 제조업 부문에서의 시장집중 현황을 상품시장별 허핀달지수를 각 품목의 출하액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시장의 집중률에 대해 기업집단 규모별로 보면, 시장집중률의 추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장집중의 하락폭을 5대, 10대, 20대, 30대별로 보면 1987년 중 1982년에 비해 각각 8.0%, 3.8%, 9.9%, 12.0% 하락하였다. 따라서 규모가 큰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시장일수록 시장집중의 하락폭이 작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시장과 전체시장의 집중률을 비교해 보면, 전체시장의 시장집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장집중이 기업집단에 의해서만 야기되는 문제가 아님을 나타낸다.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시장집중률의 하락과 관련하여 상품시장에서의 기업집단간 경쟁정도를 살펴보면, 이는 기업집단의 다각화와도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4〉와 같이 20대 기업집단에 국한하여 시장참여의 추이를 살펴보면, 상품수에서 기업집단의 전반적인 다

〈표 3-4〉 20대 기업집단간의 시장경쟁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집단수	1974년		1982년		1987년	
	상품수	%	상품수	%	상품수	%
1개	224	76.7	366	62.4	438	59.3
2개	51	17.5	124	21.1	182	24.6
3개	15	5.1	67	11.4	63	8.5
4개 이상	2	0.6	30	5.1	56	7.6
합 계	292	100.0	587	100.0	739	100.0

자료 : 이규익·이재형(1990)

각화로 20대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시장은 1974년의 292개에서 1982년 587개, 1987년 739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개의 기업집단만이 참여하고 있는 품목수와 여러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품목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4개 이상의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품목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3-5>와 같이 1994년 현재 대분류 산업기준으로 전산업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개별 기업집단들이 참여하는 세분류 산업 내에서의 경쟁 가능성은 아직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에 따르면 동일한 세분류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수는 1-3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기업집단의 참여가 가

<표 3-5> 30대 기업집단 참여산업 현황(전산업 대상)

코 드	산 업 명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세분류 산업수	동일 세분류 산업 내에서의 기업집단수												
			1	2	3	4	5	6	7	8	9	10 이 상			
A	농업, 수렵업 및 임업	2	2												
C	광업	1		1											
D	제조업	87	27	23	19	7	2	6	2				1		
E	전기, 가스 및 수도업	1		1											
F	건설업	2				1									1
G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15	5	2	3	2		1				1			1
H	숙박 및 음식점업	2	1												1
I	운수창고 및 통신업	13	2	6	2	1	1		1						
J	금융 및 보험업	13	2	3	2	1			2	1	1				1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12	5	2							1	1	1		2
O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2				1						1			
총 계		150	44	38	26	13	3	7	5	2	4	2			6

〈표 3-6〉 제조업에 있어서의 30대 기업집단 참여산업 현황

코 드	산 업 명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세분류 산업수	동일 세분류 산업내에서의 기업집단수											
			1	2	3	4	5	6	7	8	9	10 이 상		
15	음식료품	13	3	6	3	1								
17	섬유제품	5	2		2			1						
18	의복 및 모피제품	1		1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1		1										
20	목재 및 나무제품	2	2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2	1	1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3	2			1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						1						
24	화합물 및 화학품	10	2	2	3		1		1				1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3	1	1					1					
26	비금속 광물제품	7	2	2	2	1								
27	제1차 금속	4	1		1	2								
28	조립금속 제품	3		1	2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11	3	4	3			1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2		2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3			2		1							
32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3		1					2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5	5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3		1		1		1						
35	기타 운송장비	4	2		1	1								
36	가구 및 기타	1	1											
총 계		87	27	23	19	7	3	5	2				1	

장 두드러진 제조업에 있어서도 동일 세분류 산업 내에 속하는 기업 집단의 수는 매우 적음을 볼 수 있다.

〈표 3-6〉과 같이 제조업 부문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제조업 내에서 동일한 세분류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의 참여가 가장 많은 음식료업을 보더라도 1개의 기업집단만이 사업을 영위하는 세분류 산업이 3개, 2개의 기업집단이 사업을 영위하는 세분류 산업이 6개, 3개의 기업집단이 사업을 영위하는 세분류 산업이 3개에 불과하다. 또한 30대 기업집단의 참여가 많은 화합물 및 화학품업의 경우 10개 또는 7개, 5개의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산업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10개의 세분류 산업 중 7개의 산업이 1-3개의 기업집단만이 영위하고 있다.

기업집단들이 여러 시장에 참여하면서도 개별시장 내에서 소수의 기업집단이 경쟁하고 있음은 기업집단들이 서로 다른 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3-7〉에 의하면, 1994년 현재

〈표 3-7〉 기업집단 계열기업의 시장지위(1994)

(단위 : 개)

기업집단 계층	시장점유율 순위별 품목수				합 계
	1위	2위	3위	4위 이하	
1-5위	284	171	90	215	760
6-10위	105	54	56	113	328
11-15위	69	28	21	96	214
16-20위	33	21	23	79	156
21-25위	37	25	15	69	146
26-30위	38	13	15	34	100
1-30위	566	312	221	606	1,705

자료 : 이재형(1996)

30대 기업집단이 생산하는 총 1,705개의 품목 중 33.2%에 해당하는 566개 품목이 개별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총 품목의 64.5%에 해당하는 1,099개 품목이 시장점유율 3위 이내에 속해 있다. 그리고 상위 기업집단의 품목이 시장점유율이 높다. 그러나 하위 기업집단의 경우에도 시장점유율이 1위인 품목이 38%나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재형(1996)은 상위 기업집단과 하위 기업집단이 서로 다른 시장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의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표 3-8>과 같이 제조업을 중분류 산업단위에서 살펴보면, 1993년 현재 30대 기업집단이 광공업 부문의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39.7%를 넘어서는 산업도 8개 산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제

<표 3-8> 30대 기업집단의 제조업내 매출액 비중(1993)

산업 코드	업 종	비중	산업 코드	업 종	비중	산업 코드	업 종	비중
15	음식료품	29.2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89.2	31	기타 전기기계 및	26.7
16	담배	-		및 핵연료			전기변환 장치	
17	섬유제품	9.1	24	화합물 및 화학품	45.8	32	영상, 음향 및	56.6
18	의복 및 모피제품	4.1	25	고무 및 플라스틱	31.9		통신장비	
19	가방, 가죽, 마구류	0.02		제품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28.3
	및 신발		26	비금속 광물제품	22.2		및 시계	
20	목재 및 나무제품	1.9	27	제1차 금속	59.1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70.3
21	펄프, 종이 및	4.5	28	조립금속 제품	17.6	35	기타 운송장비	56.5
	종이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40.5	36	가구 및 기타	4.5
22	출판, 인쇄 및	8.6	30	사무, 계산 및	79.6	37	재생재료 가공처리	-
	기록 매체			회계용 기계				

자료 : 소일섭(1996)

조업내 총 23개 중분류 산업 중 30대 기업집단의 매출비중이 50%를 넘어서는 산업이 6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에서 30대 기업집단의 비중은 89.2%에 달하고 있으며 사무, 계산, 회계용 기계 제조업에서는 79.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은 각 산업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기업집단의 다각화 구조⁸⁾

다각화의 정도를 단순화하여 나타내기 위해 베리 또는 엔트로피, 우튼 지수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경영활동인 다각화의 정의에 따라 다각화를 참여산업 현황의 측면에서 논의해 보기로 하자.

〈표 3-9〉는 1993년 현재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규모별로 구분하여 전산업에 대해 현존 기준으로 세분류 단위 영위업종수의 현황과 연도별 추가진출 업종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연도별로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새로운 산업의 수를 규모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기업집단들은 여러 산업에 신규참여하는 확장적 성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5대의 경우 1988년부터 1994년 사이에 22개 업종에 새롭게 진출하였고, 6-10대의 경우는 13개의 신규업종에 진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11대 이하의 기업집단은 같은 기간 중 17-18개의 업종에 신규 진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8) 이 연구에서는 기업집단내 계열기업이 실제로 여러 업종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주력업종만을 영위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산업의 정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표 3-9〉 기업집단 규모별 영위업종수 현황(전산업 대상)

(단위 : 개)

규모별	1994년	연도별 신규진출 업종수							
	현 재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88-94
1-5대	81	5	3	4	3	4	1	2	22
6-10대	64	2	2	2	3	1	1	2	13
11-20대	80	5	2	2	1	3	2	2	17
21-30대	77	1	3	6	2	2	3	2	19

주 : 세분류 산업단위 기준

〈표 3-10〉은 〈표 3-9〉의 작성기준과 동일하게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영위업종수 변화를 분석한 표이다. 기업집단의 규모별로 전산업 대비 제조업 분야에서의 신규산업 진출비율을 살펴보면 1-5대, 6-10대, 11-20대, 21-30대가 각각 63.6%, 30.8%, 47.1%, 42.1%이다. 따라서 전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다소 다르게 5대 기업집단의 제조업 분야에서의 신규산업 진출이 여타 규모의 기업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0〉 기업집단 규모별 영위업종수 현황(제조업 대상)

(단위 : 개)

규모별	1994년	연도별 신규진출 업종수							
	현 재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88-94
1-5대	45	3	3	3	1	3	1	-	14
5-10대	25	1	-	-	1	1	-	1	4
11-20대	49	4	1	1	-	1	-	1	8
21-30대	44	1	2	1	-	-	3	1	8

주 : 세분류 산업단위 기준

이에 반해 <표 3-11>은 1994년 현재 30대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산업의 분포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분류 산업기준에 의해 전산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것이다.⁹⁾ 참여산업의 현황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도 상당수의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업집단 규모별로 참여산업의 정도를 보면 1-10대의 경우 평균적으로 7개의 산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11-20대, 21-30대는 각각 4.8, 5.2개의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대분류 산업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5.7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은 9개 산업에 참여한 LG인 반면, 가장 적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은 2개 산업에 참여한 한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2>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참여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기업집단의 규모별로 참여산업의 현황을 보면 1-10대, 11-20대, 21-30대의 경우 평균적으로 각각 7.2, 3.5, 3.2개의 제조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0대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4.7개의 제조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30대 기업집단들은 담배제조업(16), 재생재료 가공처리업(37) 등과 같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조업 분야에 진출하

9)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산업의 분포는 주력제품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실과 다소간의 괴리를 가질 수도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그러나 주력제품의 분류를 세분류 산업단위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분류 또는 중분류 산업 내에서의 참여 여부를 나타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표 3-11〉 30대 기업집단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분포도(전산업 대상)

기업집단명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현대	●			●		●	●		●	●	●						
삼성				●		●	●		●	●	●				●		
LG				●		●	●		●	●	●				●		
선한	●			●	●	●	●		●	●	●				●		
쌍용			●	●		●	●		●	●	●				●		
기아			●	●		●	●		●	●	●				●		
롯데				●		●	●	●	●	●	●				●		
금호				●		●	●		●	●	●				●		
대우				●		●	●	●	●	●	●				●		
동산				●		●	●		●	●	●				●		
한일				●		●	●		●	●	●				●		
효성				●		●	●		●	●	●				●		
동국제강				●		●	●		●	●	●				●		
삼성미				●		●	●		●	●	●				●		
한라				●		●	●		●	●	●				●		
동양				●		●	●		●	●	●				●		
동원				●		●	●		●	●	●				●		
코오				●		●	●	●	●	●	●				●		
진로				●		●	●		●	●	●				●		
동부				●		●	●		●	●	●				●		
고흥				●		●	●		●	●	●				●		
동건설				●		●	●		●	●	●				●		
우성건설				●		●	●	●	●	●	●				●		
해태				●	●	●	●		●	●	●				●		
미원				●		●	●	●	●	●	●				●		
참여기업 집단 수	2		2	29	2	23	26	14	13	23	24				12		

주 : A(농업, 수렵업 및 임업), B(어업), C(광업), D(제조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업), F(건설업), G(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 창고 및 통신업), J(금융 및 보험업), K(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L(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M(교육 서비스업), N(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O(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P(가사 서비스업), Q(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표 3-12〉 30대 기업집단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분포도(제조업 대상)

기업집단명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현								●	●	●				●	●	●	●	●	●	●	●	●	
삼	●		●	●			●	●	●	●	●	●	●	●	●	●	●	●	●	●	●	●	●
대																							
L																							
선																							
한	●																						
쌍																							
기																							
한	●																						
롯데																							
금																							
대																							
두																							
동	●																						
아																							
건																							
설																							
한																							
호																							
일																							
성																							
국																							
제																							
강																							
미																							
삼																							
한																							
양																							
동																							
코																							
오																							
로																							
부																							
합																							
국																							
동																							
건																							
설																							
우																							
성																							
건																							
설																							
해																							
태																							
산																							
원																							
미																							
참여기업 집단 수	9		7	2	2	1	3	5	5	15	8	12	9	8	15	3	8	10	3	7	7	1	

주 : 상단부분의 숫자는 산업코드를 나타냄.

고 있으며, 참여 기업집단의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는 화학물 및 화학품 제조업(2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표 3-11>과 달리 산업분류를 보다 세분화했을 때 개별 기업집단들이 참여하는 산업은 보다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표 3-13>과 같이 1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60년 이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의 산업별 진출현황을 살펴 보았다. 10대 기업집단의 산업별 진출현황을 시간의 흐름별로 보면, 10대 기업집단의 신규산업으로의 참여가 1970년대에 활발히 이루어진 후 1980년대 및 1990년대에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⁰⁾ 그리고 일부 기업집단들의 경우에 여타 기업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산업, 즉 1970년대에 A(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업과 H(숙박 및 음식점업)산업, 1980년대에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산업, 1990년대에 C(광업)산업 등에 진출했던 것으로 보아 경쟁 기업집단에 대해 선점을 겨냥한 다각화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대 기업집단은 지속적으로 D(제조업)산업에 진출하였고 G(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산업, K(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산업, J(금융 및 보험업)산업 등으로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은 1990년대에 들어서도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

10) 1970년대는 분석대상인 10대 기업집단이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시기이다. 참고로 1960년대의 경우에 10대 기업집단을 구성한 기업집단을 보면 삼성, 삼호, 개풍, 대한, 럭키, 동양, 극동, 한국유리, 동림산업, 태창방직 등이다. 그리고 1970년대 초반에는 삼성, 럭키, 한진, 신진, 쌍용, 현대, 대한, 한화, 극동해운, 대농 등이 10대 기업집단을 구성하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현대, 럭키, 삼성, 대우, 효성, 국제, 한진, 쌍용, 한화, 선경 등이 10대 기업집단을 형성함으로써 분석대상 기업집단 중 8개와 일치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동성(1990)을 참고할 수 있다.

〈표 3-13〉 10대 기업집단의 참여산업 추이(전산업 대상)

시기	기업집단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60년대 이전	대상우 현삼대 L 선한쌍기 한룩				●		●	●			●							
60-69년	대상우 현삼대 L 선한쌍기 한룩				●		●	●		●	●	●				●		
70-79년	대상우 현삼대 L 선한쌍기 한룩	●			●		●	●	●	●	●	●						
80-89년	대상우 현삼대 L 선한쌍기 한룩	●			●	●	●	●	●	●	●	●				●	●	
90-94년	대상우 현삼대 L 선한쌍기 한룩			●	●	●	●	●	●	●	●	●				●		●

〈표 3-14〉 10대 기업집단의 참여산업 추이(제조업 대상)

시기	기업집단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60 년 이 전	현대	●																							
	삼성			●																					
	LG																								
	신한																								
	정진																								
60 - 69 년	현대																								
	삼성																								
	LG																								
	신한																								
	정진																								
70 - 79 년	현대																								
	삼성																								
	LG																								
	신한																								
	정진																								
80 - 89 년	현대																								
	삼성																								
	LG																								
	신한																								
	정진																								
90 - 94 년	현대																								
	삼성																								
	LG																								
	신한																								
	정진																								

나 건설업에 대한 진출은 1980년대 이전에 주로 이루어진 후 신규참여가 저조한 상태이다.

〈표 3-13〉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표 3-14〉와 같이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일부 기업집단들은 1970년대에 19(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제조업)산업, 25(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산업, 27(제1차 금속산업)산업, 35(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산업, 36(재생재료 가공처리업)산업 등에 진출함으로써 경쟁 기업집단에 대해 선점효과를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1980년대에 18(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산업, 28(조립금속 제품 제조업)산업, 30(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산업, 33(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산업 등에서도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10대 기업집단의 제조업 분야에의 진출이 중화학공업 선연이 있었던 197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4(화합물 및 화학품 제조업)산업과 32(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산업 등에 대한 진출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제4장 실증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 가설의 설정과 검정

앞서 시장집중이 다각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이제 이와 같은 경로를 따라 시장집중이 다각화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그러나 특정 기업집단이 현재 영위하지 않는 여타 산업의 시장집중률이 다각화에 미치게 되는 후자와 같은 경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자료에 한계가 있다. 이에 고트가 주장한 전자의 경우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한다. 고트에 따르면 주력산업이 고집중 산업에 속해 있는 경우에 참여시장 내에서의 시장점유율 제고 노력은 경쟁기업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기업은 여타 산업으로 진출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논의가 지적하는 대로 한국에 있어서 기업집단의 다각화가 시장집중률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보기로 한다.

[가설]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집단의 주력산업 또는 참여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의 시장이 독과점화될수록 기업집단은 다각화를 추구한다.¹¹⁾

11) 주력산업을 제조업 분야에서 추출한 것은 시장집중률 자료에 대한 자료의 접근이 제조업 분야에서만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제조업이 기업집단의 매출에 기여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참여하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시장집중률이 다각화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설정하기로 한다. 종속변수(DIV_{it})는 비금융업에 국한하여 기업집단의 다각화 정도를 베리지수로 나타낸 것이다.¹²⁾ 다각화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상위3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제한 상위3사 시장집중률과 여타 설명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여타 통제변수로는 기업집단의 시장점유율과 총자산규모, 유동자산비율, 유형고정자산비율, 광고집약도, 연구개발집약도, 총자본경상이익률 분산, 참여산업의 성장률 등이 사용되었다.¹³⁾

$$DIV_{it} = F(CR_{it}, X_{it})$$

단, CR_{it}는 상위3사 시장집중률

X_{it}는 여타 통제변수

회귀모형은 모형(1)과 모형(2)로 나누어 추정하고자 한다. 모형(1)은 시장집중률 변수를 개별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제조업 부문 내에

12) 30대 기업집단의 베리지수는 <부록 1>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베리지수는 기업집단의 총매출액에서 각 계열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의 비중(s_i)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즉,

$$\text{베리지수} = 1 - \sum (s_i)^2$$

13) 다중공선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여타 설명변수에 대해 i번째 설명변수를 회귀분석함으로써 얻어지는 결정계수(R²)로부터 1/(1-R²)의 값을 계산해 보았다. 그러나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10 이상의 값을 갖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설명변수(X)에 대한 X'X 행렬식의 단위근eigenvalue 분석으로부터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률 변수간에 높은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변수를 분류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와 두 변수를 분석모형 내에 함께 포함시켜 얻은 회귀분석 결과는 변수의 유의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두 변수를 동시에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모형을 추정하기로 하였다.

서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여 그 산업에서의 상위3사 시장집중률을 사용한 경우이다. 따라서 모형(1)은 기업집단이 영위하는 주력산업의 상위3사 시장집중률이 그 기업집단의 다각화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모형(2)는 시장집중률 변수를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내 개별산업에서의 상위3사 시장집중률을 해당 산업에서의 매출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가중시장집중률을 사용한 경우이다.¹⁴⁾ 따라서 모형(2)는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제조업 분야의 평균적인 상위3사 시장집중률의 수준이 그 기업집단의 다각화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이 때 모형(1)의 경우 시장점유율은 제조업 분야에서 매출기여도가 가장 큰 주력산업의 시장점유율을 사용하였고, 모형(2)의 경우에는 참여하는 개별 제조업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가중평균한 가중시장점유율로 계측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1993년 현재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패널자료이다.¹⁵⁾ 그리고 <표 3-7>은 이와 같은 자료를 이용해 기업집단별로 다각화에 미치는 요인 중 관찰되지 않는 요인이 고정효과fixed effects로서 회귀모형의 상수항에 반영된다고 보고 실증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형(2)와 같이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제조업 부문의 세분류 산업단위 상위3사 개별시장집중률을 가중평균한 상위3사 가중시장집중률은 다각화에 대해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상위3사 시장집중률이 낮아 경쟁적인 제조업 분야에 참여한 기업집단일수록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

14) 분석 프로그램은 림덱Limdep 버전 6.0을 사용하였다. 그 외 모형의 추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인우(1996b)를 참고할 수 있다.

15)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부록 2>를 참고할 수 있다.

〈표 4-1〉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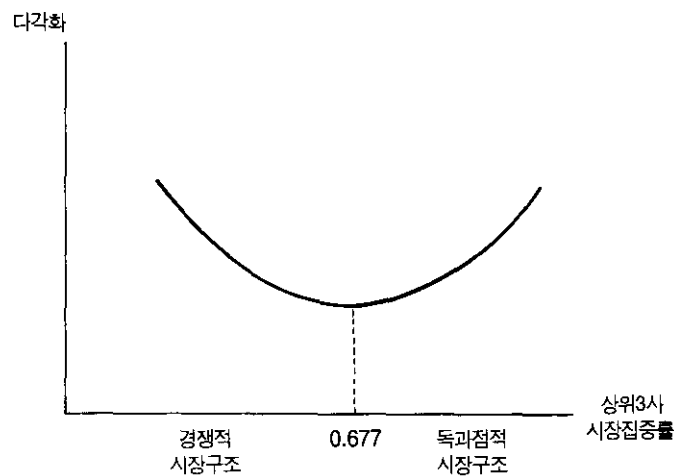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시장집중률	0.087 (0.173)	-1.131** (2.271)
시장집중률의 제곱	0.028 (0.054)	0.836** (2.159)
시장점유율	-0.348 (0.867)	-0.521 (1.158)
시장점유율의 제곱	0.116 (0.271)	0.270 (0.469)
총자산	0.051* (2.002)	0.038 (1.613)
유동자산비율	0.232 (0.900)	0.171 (0.802)
유형고정자산비율	0.083 (0.269)	-0.046 (0.169)
광고집약도	-0.806 (0.401)	-1.669 (0.963)
연구개발집약도	1.063 (0.304)	4.061 (1.206)
부채 1단위당 금융비용	-0.412 (0.772)	-0.196 (0.435)
위험도	1.445** (2.020)	1.017 (1.661)
산업성장률	-0.057 (1.443)	-0.029 (0.871)
R^2	0.986	0.990

주 : ()는 t-값, *와 **는 각각 10%, 5%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냄.

여주었다. 그러나 상위3사 가중시장집중률의 제곱항에 대해서는 정 (+)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상위3사 가중시장집중률과 다각화는 U자형의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제조업 분야에서 평균적으로 참여산업의 상위3사 시장집중률이 높아질수록 다각화를 자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상위3사 시장집중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 시장이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갖게 되는 경우에 다각화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모형(1)과 같이 주력산업의 상위3사 시장집중률은 다각화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1〉 시장집중이 다각화에 미치는 효과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모형에 따르면 참여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가 독과점 구조로 되는 경우에 다각화를 추구하게 됨을 의미한다. 만약 제한된 참여기업이 경쟁하는 고집중화된 시장에서 경쟁기업으로

부터의 압력과 보복으로 많은 비용과 위험이 따를 수 있다면, 기업 집단들은 시장점유율 제고 전략을 선택하기보다는 다각화 전략을 선택했던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시장이 협소한 한국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참여시장 내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한편 모형(1)에 따르면 기업집단들은 위험회피의 동기에서 다각화를 추구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압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한국경제의 급변화 속에서 기업집단들은 도산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주력업종에 병행하여 다른 분야에 적절히 다각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 기인한다고 본다.¹⁶⁾ 또한 잉여 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기업집단들은 다각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정부의 정책적 과제

지금까지 실증분석을 통해 시장집중과 다각화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기업집단 차원에서 논의되는 양자간의 관계는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확장될 수 있다. 일반집중을 시장집중과 다각화간의 관계에서 본 크라크와 다비스Clarke and Davies(1983) 연

16) 계열기업들의 이윤율을 X 라 하면, n 개로 구성된 기업집단의 평균이윤율 분산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text{Var}(\sum X/n) = [\text{Var}(X)n + n(n-1)\text{Cov}(X, X)]/n^2$$

따라서 다각화를 계열기업의 수로 계측한 경우에 다각화는 기업집단의 평균 이윤율 분산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평균이윤율 분산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기업집단이 어떤 주어진 기간에 부채변제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을 감소시키므로 부도확률과 다각화는 역의 관계에 있게 된다.

구를 통해 좀 더 발전시켜 보도록 하자. 그들에 따르면 업종다각화는 시장집중의 현상과 더불어 한 국민경제 내에서 일반집중과 관련성을 맺고 있다. 그리고 한 국민경제가 기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일반집중률(H_A)과 특정산업의 시장집중률(H_j), 개별 기업집단의 다각화 지수(D_i)가 식 (4-1)~(4-3)과 같이 구성된다.¹⁷⁾¹⁸⁾

$$H_A = \sum_{i=1}^N (S_i / S)^2 \quad (4-1)$$

$$H_j = \sum_{i=1}^N (S_{ij} / S_j)^2 \quad (4-2)$$

$$D_i = 1 - \sum_{j=1}^K (S_{ij} / S_i)^2 \quad (4-3)$$

- 단, N은 기업집단의 수
- K는 전체산업의 수
- S_i 는 기업집단 i의 총매출액
- S_j 는 j산업에 참여한 기업집단들의 총매출액
- S_{ij} 는 기업집단 i의 j산업에서의 매출액
- S는 국민경제 규모

17) 일반집중의 문제와 경제력집중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집단의 비중과 역할이 산업조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양자가 갖는 의미는 일맥 상통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이재형(1996)을 참고할 수 있다.

18) 경제적 자원이나 활동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집중되는 경제력집중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경제의 불안정성과 독과점에 의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경제력집중의 긍정적인 측면은 범위의 경제, 거래비용의 절감 등이 있다. 따라서 경제력집중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 다각화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규제대상이 된다.

그리고 허핀달 지수로 나타낸 일반집중률(H_A)과 다각화 총지수(D), 가중시장집중률(H_M)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된다.¹⁹⁾

$$H_A = H_M / (1-D) \quad (4-4)$$

$$\text{단, } H_M = \sum_{j=1}^K (S_j / S)^2 H_j$$

$$D = \sum_{i=1}^N w_i D_i$$

$$w_i = S_i^2 / \sum_{i=1}^N S_i^2$$

식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집중률은 개별시장의 집중률을 가중평균한 가중시장집중률에 대해 정(+)의 선형관계에 있으며, 개별 기업집단의 다각화 지수를 가중평균한 다각화 총지수 aggregate index of diversification에 대해서는 수확체감적 비선형 관계에 있다. 따라서 개별시장의 시장집중률이 증가하거나 개별 기업집단의 다각화 정도가 증가할수록 국민경제의 일반집중률이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4-2〉는 일반집중률의 변화분에 대해 가중시장집중의 변화분과 $1/(1-\text{다각화 총지수})$ 의 변화분 등으로 분해하여 10대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39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이다.²⁰⁾ 표에 따르면 1986년부터 1989년 동안에는 가중시장집중률은 감소하였으나, 다각화 총지수가 증가하여 일반집중률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1988-1989년 중

19) 보다 자세한 도출과정은 〈부록 3〉을 참고할 수 있다.

20) 일반집중률의 기여요인은 이 외에도 시장집중률로 가중평균된 개별산업들의 비중변화와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오차 등으로 구분되나 표에서는 계산되지 않았다.

가중시장집중률이 증가하였으나, 다각화 총지수의 감소로 일반집중률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1989-1990년의 경우를 보면 다각화 총지수와 모든 시장의 평균적인 시장집중률이 모두 높아짐으로써 일반집중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4-2〉 일반집중률 변동요인 분석

구 분	86-87년	87-88년	88-89년	89-90년	86-90년
일반집중률 변화	1.52	1.20	-2.07	10.27	10.94
가중시장집중률 변화	-1.20	-5.07	0.21	9.38	2.81
1/(1-다각화 총지수) 변화	2.72	6.50	-2.12	0.71	7.83

자료 : 임상일(1992)

이와 같이 경제력집중의 심화정도는 기업집단들의 다각화와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평균적인 시장집중률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간의 추세로 보면 기업집단들의 다각화는 앞서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잉여 경영자원의 효율적 활용 또는 위험회피의 동기 등과 같은 경제적 동기가 작용하는 한 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각화 총지수의 변화는 정(+)의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만약 경제력집중의 문제가 해소 내지 완화되려면 국민경제 전체 내에서의 평균적인 시장집중률이 하락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경제 전체 내에서 평균적인 시장집중률이 하락되려면 개별시장에서의 시장집중률이 모두 하락되거나 일부 시장에서는 시장집중률이 현상 유지되거나 또는 심화되더라도 그 효과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여타 시장에서의 시장집중률이 하락되어야 한다.

개별시장에서의 시중집중률은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신규기업

의 진입을 저지 또는 봉쇄할 수 있는 기존기업에 의한 진입장벽 여건과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다. 따라서 경제력집중을 해소 내지 완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각 시장에 경쟁의 압력을 불어넣어 시장집중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시장여건에 의해 다각화의 수준을 조절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개별시장 내에서 경쟁의 압력이 있는 한 기업집단들은 사업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 경제의 개방화로 선진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 경쟁의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기업집단의 사업구조 조정은 더욱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결론

기업집단의 다각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집단의 다각화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다각화가 갖는 폐해에 대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의 다각화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집단의 다각화는 지속되고 있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30대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제조업 부문의 세분류 산업단위 상위3사 개별시장집중률을 가중평균한 상위3사 가중시장집중률은 다각화에 대해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상위3사 시장집중률이 낮아 경쟁적인 제조업 분야에 참여한 기업집단일수록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상위3사 가중시장집중률의 제공항에 대해서는 정(+)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상위3사 가중시장집중률과 다각화는 U자형의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제조업 분야에서 평균적으로 참여산업의 상위3사 시장집중률이 높아질수록 다각화를 자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상위3사 시장집중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 시장이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갖게 되는 경우에 다각화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성장의 동기가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잉여 경영자원의 활용과 위험회피의 동기에서 다각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집단들이 참여하는 시장에서의 시장집중과 기업집단들에 의한 다각화는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다각화로 인한 경제력집중은 다각화를 하는 경제적 동기가 있는 한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력집중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집중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별시장에 경쟁압력을 불어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은 다각화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시장 내에서 경쟁압력이 가중되면 기업집단들은 현재 이상으로 다각화를 추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하리라 본다.

한편 시장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연독점 산업도 경쟁화의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연독점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던 산업의 경우에도 기술혁신과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공급체계에 의한 신규진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적응력을 키워준다는 점 외에도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공병호, 「한국재벌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경제학 연구』, 제42집 제3호, 1995. 2.
- 김일중, 『경제력집중 억제와 형성논리와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1994. 7.
- 김재홍·김상권·서준석, 『공익산업의 경쟁정책』, 한국경제연구원, 1995. 11.
- 김종호, 『기업의 다각화와 정부의 역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8. 12.
- 양원근, 『대기업집단의 효율성 분석』, 산업연구원, 1992. 4.
- 이규억·이성순,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한국개발연구원, 1985.
- 이규억·이재형, 『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 한국개발연구원, 1990.
- 이규억·박병형, 『기업결합』, 한국개발연구원, 1993.
- 이재형, 『우리나라 재벌의 현황과 특징』, 한국산업조직학회 세미나 자료, 1996. 9.
- 임상일, 『기업집단의 다각화와 시장집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정구현, 『한국기업의 성장전략과 경영구조』, 대한상공회의소, 1987.
- 정병휴·양영식, 『한국 재벌부문의 경제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92.
- 조동성, 『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0.
- 전인우, 「기업집단의 형성과 경제력집중 관련정책」, 『한국의 기업집단』, 한국경제연구원, 1995. 7.
- 전인우, 『한국 기업집단의 다각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

- 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조동성, 『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0.
- 중앙대 경영연구소, 『기업경쟁력과 지배구조』, 경영포럼 세미나자료, 1994. 11.
- 한국산업은행, 『1993 한국의 산업』, 1993. 11.
- 한국석유개발공사, 『석유수급통계』, 1994. 3.
- 홍현표, 『기업집단의 구조·전략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해외문헌

- 吉原英樹 外, 『日本企業の多角化戦略』, 日本經濟新聞社, 1981.
- 服部民夫, 『韓國の經營發展』, 文眞堂, 1988.
- 箱田昌平, 『多角化戰略と産業組織』, 信山社, 1988.
- Amihud, Yakov, and Baruch Lev, "Risk Reduction as a Managerial Motive for Conglomerate Mergers," *Bell Journal of Economics*, Vol. 12, No. 2, pp.605-617, 1981.
- Chang, Sea Jin, and Unghwan Choi, "Strategy,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Korean Business Groups : A Transactions Cost Approach,"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Vol. XXXVII, No. 2, pp.141-158, 1988.
- Gort, Michael, *Diversification and Integration in American Indust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 Hill, Charles W. L., and Gary S. Hansen, "A Longitudinal Study of the Cause and Consequences of Changes in Diversification in the

- U.S. Pharmaceutical Industry 1977-1986,"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2, pp.459-471, 1991.
- Jeong, K. Y., "Market Adjustment and Industrial Concentration in Korea," *Korea Social Science Journal*, Vol. 16, 1990.
- Jeong, K. Y., and R. T. Masson, "Market Structure, Entry, and Performance in Kore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LXXII, No. 3, August 1990.
- Jeong, K. Y., and R. T. Masson, "Entry During Explosive Growth : Korea During Take-off," in *Entry and Market Contestability*, edited by P. Geroski and J. Schwalbach, Oxford : Basil Blackwell, 1991.
- Lemelin, André, "Relatedness in the Patterns of Interindustry Diversific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LXIV, No. 4, pp.646-657, 1982.
- Levy, David T., "The Transactions Cost Approach to Vertical Integration : An Empirical Examin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LXVII, No. 3, August 1985.
- Montgomery, Cynthia A., and S. Hariharan, "Diversified Expansion by Large Established Firm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15, January 1991.
- Orr, Dale, "The Determinants of Entry : A Study of the Canadian Manufacturing Indust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LVI, No. 1, February 1974.
- Shleifer, Andrei, and Robert W. Vishny, "Takeovers in the '60s and the '80s : Evidence and Implicatio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Winter 1991.

Tremblay, Victor J., and Carol Horton Tremblay, "The Determinants of Horizontal Acquisitions : Evidence from the U.S. Brewing Industr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Vol. XXXVII, No. 1, September 1988.

부 록

〈부록 1〉 기업집단별 다각화 지수 : 베리지수

구분	1987	1989	1991	1993
현대	0.793469835	0.816816545	0.833369594	0.847952865
삼성	0.725633482	0.755384210	0.767924225	0.766481718
대우	0.650065761	0.676761669	0.720042420	0.689620836
LG	0.854508655	0.866005350	0.874271219	0.886928581
선경	0.672404145	0.727601427	0.734569658	0.747767971
한진	0.524904086	0.601120636	0.702101871	0.710461690
쌍용	0.762697027	0.771409729	0.801213973	0.802878953
기아	0.652820995	0.614198412	0.606391466	0.535760033
한화	0.830545339	0.812881892	0.826335633	0.808862959
롯데	0.904804452	0.897769752	0.902849482	0.900839867
금호	0.576172764	0.692279191	0.731538078	0.755941444
대림	0.532625451	0.490962411	0.476017433	0.562746754
두산	0.880063419	0.896105575	0.900578908	0.889108219
동아건설	0.495694763	0.442189444	0.519860482	0.494311630
한일	0.609273379	0.676963019	0.693864758	0.725476135
호성	0.675538763	0.674277601	0.686552913	0.631072561
동국제강	0.759520781	0.774120689	0.783288804	0.776325983
삼미	0.577439978	0.570715131	0.582430650	0.599669638
한라	0.504360908	0.597886082	0.731521773	0.797335459
한양	0.223290371	0.297922502	0.314730850	0.275416252
동양	0.482758697	0.512717597	0.503468768	0.572094327
코오	0.650731281	0.669879785	0.700431449	0.688999352
진로	0.658333878	0.645045873	0.802791298	0.826841551
동부	0.697011698	0.688983953	0.727627839	0.743052228
고합	0.440163883	0.525426575	0.511059917	0.627141992
극동건설	0.424079185	0.508759292	0.428027910	0.430917612
우성건설	0.464064412	0.425206693	0.378725736	0.394447756
해태	0.751945402	0.755550403	0.770791873	0.784215876
벽산	0.719150166	0.702071579	0.755153160	0.778466102
미원	0.779884658	0.803532106	0.819709008	0.810661696

〈부록 2〉 변수의 정의 및 계측

주요 변수	산정 방법	출
(종속변수) 베리지수	계열기업 단위 기준(비금융업)	1
(설명변수) 주력산업시장집중률	제조업 부문 주력산업의 상위3사 시장집중률	1,2
가중시장집중률	제조업 부문 참여산업 상위3사 시장집중률의 가중평균	1,2
주력산업시장점유율	제조업 부문 주력산업의 시장점유율	1,2
가중시장점유율	제조업 부문 참여산업내 시장점유율의 가중평균	1,2
총자산규모	총자산액	1
유동자산비율	유동자산액/총자산액	1
유형고정자산비율	유형고정자산액/총자산액	1
광고집약도	총매출액 대비 광고비	1
연구개발집약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
금융비용	(지급이자 + 할인료 + 회사채 이자)/총부채액	1
위험도	참여산업 부문의 총자산경상이익률 분산	1
수요성장률	제조업 부문 참여산업 출하액 성장률의 가중평균	1,2

주 : (출)은 자료의 출처로 1은 본원의 DB 및 한신평(주)의 발간자료, 2는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산업센서스보고서』, KOSIS를 나타냄.

〈부록 3〉 시장집중, 다각화, 일반집중의 관계

크라크와 다비스Clarke and Davies(1983)에 따르면, 업종다각화는 시장집중의 현상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한 국민경제 내에서 일반집중과 관련성을 맺고 있다. 그리고 한 국민경제의 일반집중률(H_A)과 특정산업의 시장집중률(H_j), 개별 기업집단의 다각화 지수(D_i)가 식(1)~(3)과 같이 구성된다.

$$H_A = \sum_{i=1}^N (S_i / S)^2 \quad (1)$$

$$H_j = \sum_{i=1}^N (S_{ij} / S_j)^2 \quad (2)$$

$$D_i = 1 - \sum_{j=1}^K (S_{ij} / S_i)^2 \quad (3)$$

단, N 은 기업집단의 수

K 는 전체산업의 수

S_i 는 기업집단 i 의 총매출액

S_j 는 j 산업에 참여한 기업집단들의 총매출액

S_{ij} 는 기업집단 i 의 j 산업에서의 매출액

S 는 국민경제 규모

그리고 허핀달 지수로 나타낸 일반집중률(H_A)과 다각화 총지수(D), 가중시장집중률(H_M)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식(3)을 식(1)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즉, 식(3)에서 $D_i S_i^2 = S_i^2 - \sum_{j=1}^K S_{ij}^2$ 이므로 양변을 S^2 으로 나누어 식(1)에 대입하면,

$$\begin{aligned}
H_A &= [(\sum_{i=1}^N D_i S_i^2) / S^2] + [(\sum_{i=1}^N \sum_{j=1}^K S_{ij}^2) / S^2] & (4) \\
&= [(\sum_{i=1}^N D_i S_i^2) / S^2] + [(\sum_{i=1}^N \sum_{j=1}^K (S_{ij}^2 / S_j^2) (S_j^2 / S^2))] \\
&= [(\sum_{i=1}^N D_i S_i^2) / S^2] + \sum_{j=1}^K w_j H_j
\end{aligned}$$

단, w_j 는 S_j^2 / S^2

따라서 위의 식과 식(1)로부터 다음과 같은 관계가 도출된다.

$$\begin{aligned}
H_A \{1 - [(\sum_{i=1}^N D_i S_i^2) / \sum_{i=1}^N S_i^2]\} &= \sum_{j=1}^K w_j H_j \\
H_A (1-D) &= \sum_{j=1}^K w_j H_j \quad \text{단, } D = (\sum_{i=1}^N D_i S_i^2) / \sum_{i=1}^N S_i^2
\end{aligned}$$

즉,

$$H_A = H_M / (1-D) \quad (5)$$

$$\text{단, } H_M = \sum_{j=1}^K (S_j / S)^2 H_j$$

$$D = \sum_{i=1}^N w_i D_i$$

$$w_i = S_i^2 / \sum_{i=1}^N S_i^2$$